

유치원 혼합연령학급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진화, 엄지원*

¹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²육아정책연구소

A study on the operation status and effective management of mixed-age classes in kindergartens

JinWha Lee¹, Ji-Won Eom^{2*}

¹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ai Chai University

²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요약 본 연구는 혼합연령학급의 현황과 학급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혼합연령학급의 교사가 효과적으로 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전국 유치원의 혼합연령학급 운영현황 및 학급편성 기준을 분석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혼합연령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유치원의 교육과정시간에 혼합연령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담임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로 실시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의 혼합연령학급 편성이유는 취원 대상 유아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둘째, 혼합연령학급 운영에서 지원인력의 부족, 교육(연수)제공 및 활용 기회 부족 등이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혼합연령학급 운영에서 가장 필요한 운영지원으로는 수업인력 지원, 행정인력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혼합연령학급 인력지원은 수업도우미, 행정도우미 순이었고, 유치원과 관련이 있는 유관 기관으로 지원 유무는 약 23.0%로 나타났고, 지원의 종류로는 교사연수, 인력예산, 컨설팅장학, 교재교구 등 수업자료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혼합연령학급 편성 시, 연령별 비율구성제시, 단계적 단일연령학급 편성유도, 혼합연령학급 교사 연수 기회제공 확대 등의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the effective management of mixed-ages classes in kindergarten. For the study, 300 kindergarten teachers in charge of mixed classes for regular courses completed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through a web survey. The data were analyzed by chi-square test and presented by frequency and percentage. Mixed-ages classes had relatively fewer children than one-age classes and they were prevalent in public kindergartens and rural area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ixed-ages classes were induced by the small number of young children. Second, teachers managed their classes with difficulty due to the lack of supporting staff and few chances for additional teaching training. Third, teachers needed supporting human resources for their teaching and administration assistances. About 23.0% of kindergartens received assistance such as additional training, financial assistance, and consulting supervision from related institutions. The study results suggested the challenges in regulations of age ratio in mixed-ages class, additional teaching training for teachers in mixed-ages classes and replacement of mixed-ages class to same age class as the long-term plan.

Keyword : class management in Kindergarten; Kindergarten mixed-age class; kindergarten; operation status in mixed aged classes; kindergarten teachers;

본 논문은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이진화, 민정원, 엄지원(2014). 혼합연령학급 효율적 운영방안”(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4-04)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요약함

*Corresponding Author : Ji-Won Eom(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el: +82-10-4269-3750 email: gracejiwon@kicce.re.kr

Received October 24, 2016

Revised (1st November 23, 2016, 2nd December 1, 2016)

Accepted December 8, 2016

Published December 31, 2016

1. 서론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이 확보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치원 혼합연령학급의 교육 질적 수준 및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2]2013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유치원의 혼합연령학급의 비율은 약 18%이며, 그 중 공립(초병설)은 약 40.5%, 사립은 약 9.7%로 공립(초병설)유치원의 혼합연령학급 설치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3]공립(초병설)유치원 설치 비율이 높은 이유는 혼합연령학급의 지역적 분포와도 관련이 있는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보다는 광주/전라, 인천/경기, 대전/충청 지역 내 농산어촌에서 공립유치원 1학급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4-5]이는 이농현상으로 인한 대도시 집중화로 인해 농산어촌의 취원 가능 유아인구 수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취원 대상 연령기 인구수가 낮은 농산어촌 지역의 혼합연령학급 운영은 불가피한 현실이다.[6]이처럼 인구사회학적 변화로 인해 농산어촌 및 소규모 도시(군, 읍소재지)의 혼합연령학급 비율이 증가하고, 누리과정의 혼합연령학급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혼합연령학급 교사는 학급 및 수업 운영 등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7]

박문희(2012)를 비롯한 몇몇 선행연구들은 단일연령을 기준으로 개발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2개 혹은 3개 연령의 복식학급에서 적용될 때, 교사는 혼합연령에 적합하게 수업운영안을 재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8-9]또한 배지희와 김은혜(2012) 등 일부 연구에서는 공립(초병설)유치원의 경우 1인 교사체제의 혼합연령학급의 비율이 높아 교사는 수업뿐만 아니라 학급운영에서 오는 부담이 커져 인력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현재 지역교육청과 유관 기관에서 수행하는 인력지원 사업이 각 시·도별로 지원상황이 다를 뿐 아니라, 혼합연령학급을 위한 지원 인력이 아니고, 특히 일부 도농지역은 인력 수급에서도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그 활용도와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10,11,12]이런 어려움과 부담감으로 인해 혼합연령학급 교사는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근거리 지역의 교사들과의 적극적인 정보교류와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업운영지도안과 교재교구지원, 수업 및 행정을 도와주는 인력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9, 13-14]

이에 누리과정 시행과 함께 혼합연령학급 운영 및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운영 - 5세 누리과정 운영을 중심으로』(이윤진 외, 2011), 『지역 및 기관 특성을 반영한 유치원 혼합연령학급 운영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2012b), 『혼합연령(복식)학급 지도서』(교육부, 2013) 등과 같은 자료가 개발·보급되고 있다.[7, 14-15]그러나 이들 자료에 대한 혼합연령학급의 교사들의 활용실태를 분석한 김정란(2013)과 배은영(2014)은 혼합연령학급 지도서가 교사 연수 및 홍보 부족으로 교사의 지도서 이해 미흡, 구체적인 수업 운영 전략의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이용이 비교적 높지 않게 나타났다.[2,13]이와 같은 결과는 혼합연령학급 교사의 구체적인 어려움과 지원 요구에 대한 파악이 보다 세밀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혼합연령학급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혼합연령학급 교사가 학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혼합연령학급의 현황과 학급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혼합연령학급의 교사가 효과적으로 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혼합연령학급을 “농산어촌 등 지역 및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담임교사 1인이 한 학급에서 만 5세와 만 3, 4세 유아를 대상으로 2개 연령 혹은 3개 연령의 복식학급을 구성하여 정규교육과정(누리과정) 운영시간대에 교육하는 학급”으로 정의하였다.[7, p.2]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혼합연령학급 학급편성 및 운영의 어려움은 어떠한가?
2. 유치원 혼합연령학급의 효율적인 학급 운영을 위한 지원 요구 내용과 그 정도는 어떠한가?

2. 유치원 혼합연령학급 현황

2.1 시도별 유치원 혼합연령학급편성기준

혼합연령학급 편성 기준은 각 시·도 교육청의 기준에 따르며 지역별로 상이하다. 17개 시·도의 혼합연령학급 편성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혼합연령학급 당 유아의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북으로 공·사립 8~21명이 고, 혼합연령학급 편성 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지

역으로 공립 22~26명, 사립 3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전북, 제주 등 일부지역에서는 혼합연령학급의 연령 구성(‘3, 4세 혼합’, ‘4, 5세 혼합’, ‘3~5세 혼합’)에 따라 정원 기준을 상세히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혼합연령학급 편성 기준에서 어린 연령이 포함될수록 학급의 유아 수는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시·도별 유치원 1개 학급 정원기준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Standard of kindergarten class size in Korea

Province	Public				Private			
	3year old	4year old	5year old	Mixed ages 3,4 4,5 3-5	3year old	4year old	5year old	Mixed ages 3,4 4,5 3-5
Seoul	18	24	28	23	18	24	28	23
Pusan	18	26	28	22, 26, 24	30	30	30	30
Daegu	18	24	28	20, 26, 24	18	24	28	20, 26, 24
Incheon	20 (18)	26 (24)	28 (26)	24 (22)	20 (18)	26 (24)	28 (26)	24 (22)
Gwangju	20	22	25	22	20	22	25	22
Daejeon	15 ~20	25	30	25	15 ~20	25	30	25
Ulsan	20	25	30	25	30	30	30	30
Sejong	15	20	25	25	15	20	25	25
Gyeonggi	16	22	26	16, 22, 20	16	22	26	16, 22, 20
Kangwon	16	22	24	16, 20, 18	16	22	24	16, 20, 18
Chongbuk	13~16	18~21	22~25	8~21	13~16	18~21	22~25	8~21
Chongnam	15	20	25	25	15	20	25	25
Jeonbuk	16	20	25	18, 24, 18	16	20	25	18, 24, 18
Jjeonnam	15	20	23	22(18)	15	20	23	22(18)
Kyungbuk	17	22	27	25	17	22	27	25
Kyungnam	19	25	28	24	19	25	28	24
Jeju	20	24	26	22, 24, 22	-	-	-	-

Source: Lee, J. W., Min, J.W., Eom, J. W.(2014). A study of the effective management of mixed-ages classes in kindergartens.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 Research no. 2014-04. p.20.

2.2 지역별 유치원 혼합연령학급 현황

2.2.1 전국 유치원 혼합연령학급 수 분포

전국 유치원 혼합연령학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유치원 총 학급수는 2013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총 30,363개이며, 혼합연령학급은 전체 학급 수의 18%인 5,461개가 운영되고 있다. 17개 시·도의 지역 내 유치원 총학급수 대비 혼합연령학급수의 비율은 5.7%~49.1%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혼합연령학급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9.1%)이며, 30%이상인 지역은 경북(40.3%), 제주(33.6%), 전북(30.8%), 강원(30.7%)로 나타났다. 혼합연령학급이 10%미만인 지역은 인천(5.7%), 서울(7.8%), 경기(8.3%)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에 비해 혼합연령학급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타지역에 비

해 원아모집이 어렵고,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명시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벽지를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현황은 Table 2와 같다.

2.2.2 지역별 공사립유치원혼합연령학급현황

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여 17개 시·도별 유치원 학급 현황 및 혼합연령학급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공립유치원 총 학급 수 8,170개 중에서 혼합연령학급은 3,308개로 약 4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국 사립유치원 총 학급수 22,193개 중에서 혼합연령학급은 2,153개로 약 9.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립유치원에서 혼합연령학급이 높은 비율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데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보다 지역 내 총학급수 대비 혼합연령학급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시 지역보다는 도 지역에서 혼합연령학급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는 41.5%에서 62.5%까지 높게 나타난다. 혼합연령학급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공립유치원(62.5%)이며, 제주 공립(60.0%), 전남 공립(59.0%), 경북 공립(56.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현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Status of mixed ages classes in Korea

unit: number,(%)

Province	B	A (B/A)	Public			Private		
			B	A (B/A)	B	A (B/A)		
Total	5,461	30,363 (18.0)	3,308	8,170 (40.5)	2,153	22,193 (9.7)		
Seoul	296	3,794 (7.8)	43	545 (7.9)	253	3,249 (7.8)		
Pusan	219	1,811 (12.1)	42	190 (22.1)	177	1,621 (10.9)		
Daegu	364	1,465 (24.8)	91	224 (40.6)	273	1,241 (22.0)		
Incheon	104	1,827 (5.7)	42	373 (11.3)	62	1,454 (4.3)		
Gwangju	275	1,078 (25.5)	105	200 (52.5)	170	878 (19.4)		
Daejeon	128	1,199 (10.7)	72	207 (34.8)	56	992 (5.6)		
Ulsan	98	805 (12.2)	59	150 (39.3)	39	655 (6.0)		
Sejong	15	70 (21.4)	15	57 (26.3)	0	13 (0.0)		
Gyeonggi	680	8,153 (8.3)	506	2,031 (24.9)	174	6,122 (2.8)		
Kangwon	263	857 (30.7)	233	415 (56.1)	30	442 (6.8)		
Chongbuk	219	932 (23.5)	204	491 (41.5)	15	441 (3.4)		
Chongnam	356	1,327 (26.8)	308	565 (54.5)	48	762 (6.3)		
Jeonbuk	438	1,422 (30.8)	338	541 (62.5)	100	881 (11.4)		
Jjeonnam	581	1,183 (49.1)	403	683 (59.0)	178	500 (35.6)		
Kyungbuk	771	1,914 (40.3)	385	680 (56.6)	386	1,234 (31.3)		
Kyungnam	572	2,282 (25.1)	387	693 (55.8)	185	1,589 (11.6)		
Jeju	82	244 (33.6)	75	125 (60.0)	7	119 (5.9)		

Note: A=mixed ages classes, B=total classes

Source: Lee, J. W., Min, J.W., Eom, J. W.(2014). A study of the effective management of mixed-ages classes in kindergartens.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 Research no. 2014-04. p.21

지금까지 살펴본 혼합연령학급 편성 기준과 현황의 기초 자료를 통해 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혼합연령학급 편성기준은 각 17개 시·도 별로 마련되어져 있으며, 시·도에 따라 관내 지역적 특성 즉 도서벽지 혹은 읍·면 단위의 유치원 부재 지역 등을 위한 편성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둘째, 시·도에 따라서 3, 4세, 4, 5세 3~5세 등의 학급편성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경기, 강원 지역은 3, 4세 정원이 16명으로 편성기준에서는 가장 낮은 인원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원아모집 등과 관련하여 농산어촌 지역이나 도서벽지 지역 등 취원 유아 수가 부족하거나 유치원이 없는 곳에서는 최저 학급 편성인원 수가 충족되는 경우, 학급을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8개 광역 도시권에서 중에서는 광주와 대구가 공립유치원은 각 50%, 40% 정도의 혼합연령학급 비율로 비교적 다른 광역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농산어촌지역, 도농복합지역, 도서지역 등이 포함된 도 단위에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서 혼합연령학급 운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유치원 혼합연령학급 비율이 대도시에 비해 소규모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혼합연령학급 연령별 구성비율을 일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혼합연령학급 담임교사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전국의 혼합연령학급 담임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응답은 1곳의 유치원의 혼합연령학급 담임교사 1인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유치원 교육과정(오전) 시간에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로 한정하여 일부 유치원의 특정한 프로그램을 위해 혼합연령학급을 운영하는 기관의 교사는 제외하였다. 본 조사를 위한 표집과정에서 전국의 혼합연령학급 비율 현황이 반영되었다. 혼합연령 학급 운영 실태 설문조사에 응답한 유치원 교사 300명의 특성별 분포는 Table 3와 같다.

Table 3.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unit: number(%)

Variables	two-age group				3, 4, 5	total
	3, 4	4, 5	3, 5	total		
Total	42	63	6	111	189	300(100.0)
Kindergarten's types						
public	32	51	6	89	179	268(89.3)
private	10	12	0	22	10	32(10.7)
Provinces						
capitla areas	13	24	1	38	62	100(33.3)
choongchong area	8	10	1	19	32	51(17.0)
kyungSang area	15	23	3	41	47	88(29.3)
Jeonna area	6	6	1	13	48	61(20.3)
Teaching duration for mixed ages classes						
under 2 year	18	13	2	33	35	68(22.7)
2≤~ ≤5	12	15	1	28	47	75(25.0)
5≤~ ≤15	8	23	0	31	52	83(27.7)
15 ≤ ~	4	12	3	19	55	74(24.7)

3.2 연구도구

본 연구는 혼합연령학급 교사의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유치원 기관 및 교사 인적 기본사항, 혼합연령학급의 학급 및 수업 운영, 교사의 요구 등을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질문과 보기 문항을 구성하였다.[2,8,13-14,16]차로 혼합연령학급 담임교사, 학계전문가 3인에게 5월 1~2주에 걸쳐 문항 검토를 의뢰하여 수정하였고, 수정된 설문지를 5월 4주에 학계전문가 2인에 의해 검토 후 최종 확정하였다. 설문내용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Survey's question contents

Questions' content	Questions' Numbers
Kindergarten's types, Areas, teachers' ages, the durations of teaching for mixed ages class, etc	7
the reasons of constitute and operation of mixed age classes, the requirements for mixed ages classes, etc	10

3.3 자료 수집 및 분석

조사 대상 표집은 전국 각 시·도의 지역별 혼합연령학급 수 분포를 확인하고, 이에 비례 할당하여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목표 인원의 3배수를 표집하였다. 표집된 유치원 혼합연령학급 담임교사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발송하여 웹조사를 실시하였다. 웹조사는 2014년 6월 1주~7월 2주 동안 이루어졌다. 웹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자료 분석은 지역, 혼합연령학급 구성형태, 혼합연령 학급 교사 경력 등의 변인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4 혼합연령학급 운영 실태 및 요구

4.1 혼합연령학급 편성 및 운영 이유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과정시간에 혼합연령 학급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86.7%의 교사가 동일연령 유아수가 부족해서로 응답하였고 혼합연령 학급의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5.0%, 교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1.7%로 응답하였다. 특히 3복식 학급을 담임하는 교사(92.1%)와 혼합연령 담임 경력이 많은 교사(15년 이상 93.2%)의 경우 2복식 학급 담임교사(77.5%)나 혼합연령 담임 경력이 적은 교사(2년 미만 88.2%)에 비해 동일연령 유아수의 부족이 혼합연령 학급 운영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지역별 현황에서도 충청권(94.1%) 동일연령 유아수의 부족을 혼합연령 학급 운영의 주된 이유로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The reasons of operation of mixed ages classes unit %, number

Variables	lack of same age children	positive effects of mixed ages classes	difficulty for employment of teaching staffs	etc	total
Total	86.7	5.0	1.7	6.7	300
Provinces					
Captial area	88.0	2.0	2.0	8.0	100
choongchong area	94.1	2.0	0.0	3.9	51
kyungSang area	79.5	10.2	2.3	8.0	88
Jeonna area	88.5	4.9	1.6	4.9	61
Types of classes					
three ages mixed	92.1	2.1	1.1	4.8	189
two ages mixed	77.5	9.9	2.7	9.9	111
Teaching duration for mixed ages classes					
under 2 year	88.2	7.4	1.5	2.9	68
2 ≤ ~ ≤ 5	76.0	10.7	1.3	12.0	75
5 ≤ ~ ≤ 15	89.2	2.4	2.4	6.0	83
15 ≤ ~	93.2	0.0	1.4	5.4	74

4.2 혼합연령학급 운영의 어려움과 지원요구

혼합연령학급 운영 시 어려운 점으로는 지원인력 부

족에 대한 응답이 38.7%로 가장 많았고 혼합연령학급에 대한 교육 기회 부족 24.3%, 혼합연령학급에 대한 이해 및 정보 부족 19.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혼합연령 학급 담임 경력이 길수록 학급 운영에 지원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15년 이상 경력교사의 경우 15년 미만의 교사보다 혼합연령 학급 운영에 대한 이해나 정보 부족이나 교육 기회 부족으로 인한 혼합연령 학급 운영의 어려움은 덜하다고 느끼지만 혼합연령 학급에 대한 지원인력의 부족과 학부모의 편견이 학급 운영에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The difficulty for operating mixed ages classes unit:%, number

Variables	lack of supporting staffs	lack of chances for teaching trainings	for shortage of infromation	parents' prejudices	no difficulty	etc	total
total	38.7	24.3	19.7	11.7	3.0	2.7	300
Provinces							
Captial area	36.0	22.0	22.0	12.0	4.0	4.0	100
choongchong area	51.0	25.5	11.8	7.8	2.0	2.0	51
kyungSang area	36.4	17.0	23.9	17.0	4.5	1.1	88
Jeonra area	36.1	37.7	16.4	6.6	0.0	3.3	61
Types of classes							
three ages mixed	40.7	24.3	17.5	12.2	2.6	2.6	189
two ages mixed	35.1	24.3	23.4	10.8	3.6	2.7	111
Teaching duration for mixed ages classes							
under 2 year	23.5	33.8	35.3	5.9	1.5	0.0	68
2 ≤ ~ ≤ 5	36.0	21.3	17.3	12.0	8.0	5.3	75
5 ≤ ~ ≤ 15	50.6	22.9	14.5	9.6	0.0	2.4	83
15년 ≤ ~	41.9	20.3	13.5	18.9	2.7	2.7	74

한편 혼합연령학급 운영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Table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력 지원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수업인력 지원 49.7%이었고, 행정지원 인력 30.0%로 나타났다. 선진지 견학 등 정보제공 9.0%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합연령 학급 담임 경력이 긴 교사 일수록 수업인력이나 행정인력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반면 혼합연령 학급 담임 경력이 짧을수록 교사 연수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7. Support for mixed-age class

Variables	unit:%, number					total
	support for teaching staffs	support for administrative staffs	Providing information	chances for teacher's training	etc	
total	49.7	30.0	9.0	8.0	3.3	300
Provinces						
Capital area	46.0	31.0	9.0	12.0	2.0	100
choongchong area	52.9	35.3	5.9	3.9	2.0	51
kyungSang area	48.9	30.7	9.1	5.7	5.7	88
Jeonra area	54.1	23.0	11.5	8.2	3.3	61
Types of classes						
three ages mixed	51.9	29.6	9.5	5.8	3.2	189
two ages mixed	45.9	30.6	8.1	11.7	3.6	111
Teaching duration for mixed ages classes						
under 2 year	45.6	20.6	14.7	19.1	0.0	68
2 ≤ ~ ≤ 5	48.0	32.0	9.3	8.0	2.7	75
5 ≤ ~ ≤ 15	50.6	32.5	7.2	4.8	4.8	83
15 ≤ ~	54.1	33.8	5.4	1.4	5.4	74

4.3 인력 및 유관기관 지원 현황

혼합연령 학급에서 보조교사, 3세대 하모니 등 지원 인력의 역할은 수업도우미 61.3%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행정도우미 23.3%, 기타 15.3%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로 비교하였을 때 충청권에서 보조교사, 3세대 하모니 등은 수업 도우미로 활동한다는 응답이 78.4%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전라권은 타 지역보다 특징적으로 수업 도우미 활용률이 49.2%로 낮고 행정 도우미 활용률(39.3%)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었다. 혼합연령학급 담임교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경우 보조교사나 3세대 하모니 등을 경력이 낮은 교사들에 비해 행정도우미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수업 도우미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Roles of supporting staffs

구분	unit:%, number			total
	teaching assistant	Administrative Assistant	etc	
total	61.3	23.3	15.3	300
Provinces				
Capital area	63.0	17.0	20.0	100
choongchong area	78.4	15.7	5.9	51
kyungSang area	58.0	23.9	18.2	88
Jeonra area	49.2	39.3	11.5	61
Types of classes				
three ages mixed	61.4	23.3	15.3	189
two ages mixed	61.3	23.4	15.3	111
Teaching duration for mixed ages classes				
under 2 year	67.6	14.7	17.6	68
2 ≤ ~ ≤ 5	65.3	20.0	14.7	75
5 ≤ ~ ≤ 15	63.9	21.7	14.5	83
15년 ≤ ~	48.6	36.5	14.9	74

한편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 등과 같은 유관기관으로 부터 혼합연령 학급의 운영을 지원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는 23.0%로 나타났다(Table 9 참조). 지역별로 비교하였을 때 유관기관의 지원 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충청권 37.3%, 전라권 27.9%, 경상권 18.2%, 수도권 17.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급 구성 형태가 3복식인 경우 2복식인 경우보다 유관기관의 지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연령학급 담임교사 경력이 2년 미만인 경우 유관기관의 지원을 상대적으로 다소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Support status of relative organizations for mixed ages classes

Variables	unit:%, number		
	yes	no	total
total	23.0	77.0	300
Provinces			
Capital area	17.0	83.0	100
choongchong area	37.3	62.7	51
kyungSang area	18.2	81.8	88
Jeonra area	27.9	72.1	61
Types of classes			
three ages mixed	27.0	73.0	189
two ages mixed	16.2	83.8	111
Teaching duration for mixed ages classes			
under 2 year	16.2	83.8	68
2 ≤ ~ ≤ 5	26.7	73.3	75
5 ≤ ~ ≤ 15	26.5	73.5	83
15 ≤ ~	21.6	78.4	74

해당 유치원, 교육지원청, 유아교육진흥원 등에서 혼합연령 학급의 운영을 지원받았던 69건의 지원내용은 Table 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사연수 29.0%, 인력 고용을 위한 예산지원 23.2%, 컨설팅 장학 21.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본 지원 내용을 보면, 충청권에서는 인력고용을 위한 예산지원을 전라권에서는 컨설팅 장학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지원인력이 없을 때 상대적으로 컨설팅 장학과 수업자료 지원을 더 많이 받았다고 응답했다. 학급구성 형태별로 비교했을 때는 3복식 학급에서 2복식 학급보다 인력 고용을 위한 예산지원을 받은 경우가 더 많았다. 혼합연령학급 담임교사 경력에 많을수록 교사 연수를 받은 경우가 적었으며 특히 15년 이상의 경력교사의 경우 인력 고용을 위한 예산지원이나 교재 교구 등 수업 자료 지원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Support contents relevant organizations
unit:%,number

Variables	Teacher training	The financial support for employment	Consulting for supervision	the support for teaching materials	etc	total
total	29.0	23.2	21.7	17.4	8.7	69
Provinces						
Captial area	29.4	29.4	23.5	11.8	5.9	17
choongchong area	15.8	36.8	21.1	10.5	15.8	19
kyungSang area	43.8	12.5	6.3	31.3	6.3	16
Jeonra area	29.4	11.8	35.3	17.6	5.9	17
Types of classes						
three ages mixed	25.5	25.5	21.6	17.6	9.8	51
two ages mixed	38.9	16.7	22.2	16.7	5.6	18
Teaching duration for mixed ages classes						
under 2 year	45.5	9.1	36.4	9.1		11
2 ≤ ~ ≤ 5	30.0	30.0	15.0	15.0	10.0	20
5 ≤ ~ ≤ 15	27.3	9.1	27.3	18.2	18.2	22
15 ≤ ~	18.8	43.8	12.5	25.0		16

4. 논의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혼합연령학급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문조사를 통해 혼합연령학급 운영의 어려움과 지원 요구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유치원의 혼합연령학급 편성이유는 취원 대상 유아의 수가 부족하여 단일연령학급 편성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둘째, 혼합연령학급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지원인력의 부족, 교육(연수)제공 및 활용 기회 부족, 혼합연령학급에 대한 이해 및 정보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합연령학급 담임 경력변인에서 혼합연령학급 담임 경력이 적을수록 교육(연수)제공 및 활용 기회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한 반면, 경력이 많은 교사는 지원인력 부족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셋째, 혼합연령학급 운영에서 가장 필요한 운영지원으로는 수업인력 지원, 행정인력 지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응답률이 약 79.7%로 나타나 인력지원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혼합연령학급 인력지원 및 유관기관 지원현황에서는 수업도우미, 행정도우미 순으로 인력지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답하였고, 이 두 영역의 응답률이 약 84.6%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유치원과 관련이 있는 유관 기관으로 지원 유무는 약

23.0%로 나타나서 약 69명의 교사만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원의 종류로는 교사연수, 인력예산, 컨설팅장학, 교재교구 등 수업자료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혼합연령학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혼합연령학급 편성 시 연령별 비율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혼합연령학급 복식형태별 편성기준은 현재 1학급 전체 규모로 제시되어져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1학급 전체 규모와 함께 연령별 비율을 제시해 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부지역에서는 혼합연령학급에서 연령별 비율을 정하고, 혼합연령학급 원아 모집에서 인원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원장 재량으로 이 규정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도서 벽지지역과 같이 최소 1학급 편성 지침 적용 지역은 취원 대상 유아 수가 상당히 부족한 지역에서는 연령별 비율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복식연령 형태별 적정 비율을 학급 규모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취원대상 유아 수 예측을 통한 단계별 단일연령학급 편성을 유도해야 한다. 동일지역에서 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단일연령학급 비율이 낮고 혼합연령학급 비율이 높은 곳에서는 지역적 거리, 취원대상 유아수를 파악하여 단일연령학급을 편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도단위의 지역들 중에서는 혼합연령학급으로만 구성된 공립유치원과 소수 인원의 학급으로 구성된 사립유치원이 있거나, 사립유치원은 없고 혼합연령학급으로만 구성된 공립유치원만 위치한 곳이 있다. 이와 같은 지역의 유치원 혼합연령학급 분포를 교통과 이동거리, 지역 취원대상아 수의 인구학적 예측 등의 비교 검토 후 단일연령학급 편성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모든 연령의 단일연령학급 편성이 어려울 경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단일연령학급편성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윤진과 김은설(2011)은 이와 같이 단일연령학급 편성 유도 시, 각 지역적 인구 동향을 분석하고 반영하여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농산어촌 및 도서 지역 등과 같은 특수 지역의 혼합연령학급 유치원을 위한 지원 인력 수급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도 혼합연령학급 교사들이 지원인력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 비

추여 보면, 지원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지원인력의 수급은 대도시 혹은 도시 지역에서는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지나, 혼합연령학급이 많이 있는 농산어촌지역과 도서벽지 지역에서는 지원 인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에서는 특수 지역의 인력 지원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들을 중심으로 ‘인력풀’을 형성하여 교사의 수업 및 행정 업무 지원을 통해 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방안을 행정적인 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셋째, 혼합연령학급 교사를 위한 맞춤형 교사연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혼합연령학급 교사를 위한 학급 및 수업운영에 대한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 백인선(2009)은 혼합연령학급 교사의 연수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 배은영(2013) 역시 기존에 개발된 혼합연령학급 자료에 대한 연수가 이루어지면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면서 교사 연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공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단일연령학급 보다는 혼합연령학급 교사를 맡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혼합연령학급 교사를 위한 맞춤형의 구체적인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 혼합연령학급을 교사를 위한 실제적인 사례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한 교사 연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는 유치원 혼합연령학급 현황을 파악하고,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학급운영의 어려움과 지원 요구 정도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혼합연령학급의 경향과 실태를 파악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17개 시·도의 혼합연령학급 현황과 지원 상황이 다른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군별로 묶어서 그 현황을 제시하였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각 시·도의 혼합연령학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사례를 수집하여, 그 실행정도와 효과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지역 맞춤형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공립유치원에서 단일학급으로 혼합연령학급을 운영하는 곳이 많아서 표집이 90%가 공립유치원 교사였고, 표집 대상의 경력 분포가 넓어서 연구진의 협의를 거쳐 임의적으로 교사 경력을 분류하였으나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세밀한 표집을 통한 교사 경력별 분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혼합연령학급을 정책적 제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취원대상 유아 수 예측을 통한 단일학급연령 편성을 위한 사례연구와 혼합연령학급 교사 연수의 구체적인 내용 개발 등

을 기대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Education, “A study of 5-years pla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Korea”, 2012a
- [2] E. Y. Bae., Public kindergarten Teacher's awareness and actual utilization of 「Mixed-Age Class Gui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Nam University, 2013.
- [3] J. W. Lee, J. W. Min, & J. W. Eom(2014), “A study of the effective management of mixed-ages classes in kindergartens”, *Korea Institute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 Research no. 2014-04, 2014.
- [4] Y. J. Lee, “The context of mixed-ages small classes at kindergarten”, *Korea Institute Child Care and Education Forum*, vol. 27, pp.6-15, 2011.
- [5] E. J. Jung, “Action research in effective lesson plans for mixed-age classes at kindergart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2012.
- [6] K. C. Kim, and A. N. Kim, “Teacher's life discussed by five teachers of small class of public kindergarten”, *The Journal of Korean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5, no. 1, pp. 1-34, 2010.
- [7] Ministry of Education, “Mixed-age preschool classroom management manual reflects the region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2012b.
- [8] M. H. Park, “Teachers' awareness on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al and public kindergarten mixed-age cla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12.
- [9] H. S. Cho, and S. H. Park, “Teacher's Perception on characteristics of One-class in Public Kindergarten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16 no. 3, pp.319-340, 2012.
- [10] J. H. Bae, and E. H. Kim, “Educational Practices and Difficultie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in mixed-age Classrooms” *The Journal of Eco-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1, no. 2, pp. 189-213, 2012.
- [11] J. H. Bae, and I. Hwang, “Children's use of requests and responses in peer interactions in a mixed-age classroom”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7, no. 6, pp.187-212, 2007.
DOI: <https://doi.org/10.18023/kjece.2007.27.6.009>
- [12] Y J. Lee, and H. J. Kim, “A Study on Difficulty in Task Performance by Teachers in One-class Public Kindergarten”, *Korean Education inquiry*, vol. 28 no. 2, pp.13-33, 2010.
- [13] J. R. Kim,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Nuri Curriculum for Age 5' in mixed-age classes: focused on mixed-age Classes in Gyeonggi-do”, Unpublished Master's Thesis, Duksung Womens University,2013.
- [14] Y. J. Lee, and E. S. Kim, “Cooperation network operations for the course substantiality in kindergartens. Ministry of Education at KyunggiDo and Incheon”, 2011.

- [15] Ministry of Education, “The guide for mixed-ages classes in kindergartens”, 2013.
- [16] J. E. Lee, “A study on awareness of the preparation and utilization of daily teaching plans among kindergarten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University, 2013.

이 진 화(JinWha, Lee)

[정회원]



- 199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문학사)
- 199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문학석사)
- 2006년 12월 : University of Nottingham. M. A
- 200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문학박사)
- 1997년 3월 ~ 2001년 1월 : 극동정보대학교 유아교육과 전임강사 및 조교수
- 2007년 3월 ~ 2013년 12월 : 숭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2014년 2월 ~ 2016년 2월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2016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교사교육, 부모교육

엄 지 원(Ji-Won, Eom)

[정회원]



- 2008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문학사)
- 2011년 8월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문학석사)
- 2012년 1월 ~ 현재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영유아발달, 조기개입 및 중재, 보육정책